



아태지역 무형문화유산 보호의 과제와 유네스코 카테고리 2 기구 활동의 비전

박성용

아·태무형유산센터 소장

들어가는 말

산업화, 도시화, 세계화 과정에서 변형, 소멸, 파괴의 위기에 직면해 있는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하여 유네스코가 2003년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을 채택함에 따라 인류의 창조성과 문화 다양성의 원천인 무형문화유산¹ 보호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의 이행은 중장기적으로 인류 전통문화유산의 보호는 물론 미래 세대를 위한 무형문화유산의 지속가능성과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풍부한 문화적 환경 속에서 다양한 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아태지역은 무형문화유산의 보고寶庫라고 일컬어지고는 있으나 무형문화유산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고 보호를 위한 제도적·행정적 기반이 부족하여 다수의 무형문화유산이 소멸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아태지역의 개발도상국이나 저개발국가들은 각 사회의 전통 보존과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의 맥락에서

1_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유네스코 제32차 총회, 2003년 10월 17일 채택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급격한 세계화, 도시화 및 현대화를 극복해야하는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지난 반세기에 걸쳐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제도와 정책을 수립하여 모범적으로 운영해 오면서 국제사회로부터 무형문화유산 보호 분야의 선도국으로 인정받고 있는 대한민국은 아태지역의 무형문화유산 보호 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지역국가들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공헌하기 위하여 유네스코 아·태 무형유산국제정보네트워크킹센터의 한국 유치를 추진해 왔으며 지난 10월에 개최된 제35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센터 설립이 최종 승인²되었다.

이번 기초발표에서는 우선 아태지역의 문화적 환경을 분석해 보고, 그동안 아·태무형유산센터가 추진해 온 무형문화유산 보호활동사업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아울러, 대한민국에 설립되는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국제정보네트워크킹센터의 운영 계획 및 전략 그리고 센터의 중장기적인 비전에 대해 살펴보면서 특히, 센터의 핵심 기능이 될 ‘정보 및 네트워킹’과 관련한 전략과제들을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1.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문화적 환경

1. 아태지역의 풍부한 무형문화유산

인류는 지금까지 각자의 문화를 독특한 방식으로 발전시켜 왔다. 무형문화유산은 인류의 창조적 능력을 보여주는 동시에 각 민족의 정체성을 지탱하는 귀중한 자산이며, 세계의 문화 다양성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아시아 태평양의 광대한 지역에는 수많은 민족들이 각기 생활의 터전을 마련하고 삶을 영위해 오면서 저마다 독특한 문화와 문화유산을 만들어 내어 대대로 전승해 오고 있다. 특히 아태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풍부한 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아태지역의 종교·지리·문화·사회적인 배경에서 기인한다.

아태지역의 특징 중 하나는 이 지역에 살고 있는 민족 수만큼이나 다양한 종교

2 「유네스코 후원 카테고리 2 기구 국제정보네트워크킹센터의 대한민국 내 설립 제안」은 유네스코 제35차 총회 의제 5.6항을 통하여 논의되었으며, 2009년 10월 23일 최종 설립 승인되었다.

가 공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종교 문화가 모든 아태 국가들의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는 양상을 보이고, 이를 바탕으로 하는 다양한 무형문화유산을 찾아 볼 수 있다.

또한 아태지역은 지리적인 측면에서 다채로운 자연환경과 광활한 면적을 보유하고 있다. 다른 지역과 비교해 볼 때 시베리아로부터 태평양 폴리네시아에 이르는 가장 광활한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서로 다른 자연 환경 즉, 고원지대, 농업지대, 초원, 섬, 사막 지역 등으로 다채롭게 이루어져 있고, 이렇듯 광활하고 서로 다른 자연환경에서 영주해 온 사람들이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며 각자의 생업에 종사하는 과정에서 각기 독특하고 다양한 문화를 형성해 온 것이다.

아태지역의 다양한 관습과 전통지식의 발전 또한 이 지역의 풍부한 무형문화유산 발달에 일조하였다. 인간의 생로병사 과정의 각 단계들과 관계된 풍습과 무형 및 물질적 풍요의 원천인 전통지식³⁾은 지역과 민족 그리고 사회 구조마다 강조하는 의례의 종류와 전통생활 경험 및 지식이 다르기 때문에 형식 역시 다양하다. 다시 말해, 아태지역은 지역, 또는 민족, 부족에 따라 다양하고 각기 다른 각 사회의 관습과 전통지식을 발전시켜 온 것이다.

또한, 아태지역의 역사 속에서 찾아 볼 수 있는 다양한 왕조의 흥망성쇠를 들 수 있다. 아태지역에는 과거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형성된 웅장한 문화유산이 많이 전해지고 있다. 비록 현대에 이르러 왕조는 단절되었다 하더라도 왕실의 화려한 문화유산만큼은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왕실 문화는 민간에서 전승되는 유산과는 규모와 형식면에서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아태지역의 또 다른 특색을 들자면, 이 지역의 다수 국가들은 여러 민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러한 다양한 민족들이 그들만의 생활 방식과 전통을 바탕으로 독특한 문화를 지속해오고 있다는 점이다. 다민족들로 구성되는 다문화 사회를 지탱하고 발전시켜온 과정 또한 아태지역의 문화적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다원적 종교의 공존, 다채로운 자연환경과 광활한 면적, 다양한 관습과 전통지식의 발전, 왕조의 성쇠와 그 문화적 유산, 다민족 사회와 같은 특성은 아태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풍요로운 무형문화유산의 기반을 설명하여 준다.

3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협약」, 유네스코 제33차 총회, 2005년 10월 20일전문 8항(무형 및 물질적인 풍요의 원천인 전통지식, 특히 토착민 지식체계의 중요성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전통지식의 기여 그리고 그 전통지식의 적절한 보호와 증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2. 무형문화유산의 전승을 위협하는 제요소들

아태지역에는 무형문화유산의 발전을 가져오는 요인들과 이들의 전승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공존하고 있다. 근대화, 세계화, 경제 발전 논리, 정치·사회적 불안, 무형문화유산 전승자의 감소,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저조한 인식은 무형문화유산전승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는 무형문화유산의 존립을 직접적으로 위협한다.

아태지역 대부분의 개도국에서 무형문화유산은 근대화로 인한 사회 구조의 변화 및 지구적 차원의 환경 변화 등 사회적·자연적 요인들로 인해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 이미 많은 변형과 소멸 과정을 겪고 있다.⁴ 특히, 아태지역은 식민지와 전쟁을 경험한 국가가 많고, 대다수의 국가들이 서구 문화 중심의 급격한 산업화와 근대화를 겪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더욱 전통적으로 향유해 온 무형문화유산이 큰 위협에 처해 지고 있다.

또 다른 요소로는 세계화의 영향이 있다. 오늘날 세계화의 영향에서 자유로운 국가는 드물다. 문제는 대다수의 아태지역 국가들이 이러한 서구 문화의 유입에 대응하여 자국의 전통문화를 전승할 수 있는 능력을 아직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개발 논리에 밀려 '서구화는 곧 근대화'라는 인식이 폭넓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현실은 아태지역 각국의 전통문화 전승을 약화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이기도 하다.

각국의 경제개발 논리 또한 무형문화유산 전승의 위협요소가 된다. 개발 발전은 한 국가에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전 세계적으로 빈곤에서 탈피해서 국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노력에 모든 사회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특히 경제적으로 저개발국가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아태지역에서 경제발전은 이 지역 국가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이 지역에서는 전통문화의 보호와 경계가 대립할 때마다 다수의 이익을 위한다는 경제 발전의 논리에 항상 힘이 실리게 되어 무형문화유산의 미래는 불투명할 수밖에 없다.

아태지역은 지난 수십 년간 전쟁과 정권 변화로 인해 사회적 불안을 경험한 국가들이 많다. 이런 상황은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는 데 부정적인 환경임에 틀

4. 「무형문화재 보존방법론 개발 국제정책회의 권고안」, 「무형문화재 보존을 위한 제 방법론-무형문화재 보존방법론 개발 국제정책회의 보고서」, 문화재관리국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996, 1~11쪽.

림없다. 다행히 최근 들어 사회적 불안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던 자국의 무형을 재생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진행되고는 있지만, 아직 초기 단계인 만큼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

또 다른 위험 요소는 바로 무형문화유산 전승을 위한 구조적인 문제에 있다. 물론 모든 세대에 걸쳐 높은 관심의 대상이 되는 무형문화유산도 있지만 대부분은 젊은 세대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 연행자의 수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리고 전통문화를 전승할 수 있는 주요 연행자들이 점점 노령화 하는 것도 큰 문제이다. 세대를 통한 전승을 기본으로 하는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에 있어서 이러한 전승자의 감소는 세대 간의 단절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깊고 넓어갈 문제는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저조한 인식이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무형문화유산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폭넓게 공유되고 있지 못하다. 이것은 현재 아태지역에서 문화유산 관련 제도를 보유한 국가가 소수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무형문화유산을 위협하는 사회변화와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서도 근본적으로는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기본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은 아태지역 무형문화유산의 전승을 위협하여 결과적으로 무형문화유산의 존재 자체를 어렵게 만든다. 따라서 무형문화유산의 보호 활동은 앞의 여섯 가지 위험 요소에 대한 해결 방안 마련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II. 아·태무형유산센터의 무형문화유산 보호 활동

2003년 유네스코 제32차 총회에서 채택되어 2006년 4월에 발효된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의 정신을 구현하고 아태지역의 무형문화유산 보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은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문화재청은 2006년 9월에 아·태무형유산센터(당시 설립기획단)를 발족하여 센터 설립 업무와 함께 아태지역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협력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의 전신이 될 현재의 아·태무형유산센터는 발족 이후 다음과 같은 활동들을 추진하고 있다.

1. 연구 정보 허브 기반 조성 사업

아·태무형유산센터는 아태지역 무형문화유산 보호 현황조사 사업과 인도 무형유산의 보호와 진흥을 위한 협력사업을 추진하여 연구 정보 허브로서의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우선, 센터는 무형문화유산 보호 현황조사 사업⁵을 통하여 아태지역의 무형문화유산과 무형유산 보호를 위해 각국이 취하고 있는 노력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이 사업에서는 각국의 무형문화유산 목록, 보호제도 및 정책, 관련 기관 및 보유자 활동 등 무형문화유산을 둘러싼 각국의 현황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2009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현재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몽골, 태국, 피지 등에서 현지 전문기관 및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센터는 아태지역 국가들의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의무 이행을 장려하고 지역 내 관련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2007년부터 무형문화유산 국가목록 작성 및 관련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준비 중인 인도 정부 및 유네스코 뉴델리 지역사무소와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⁶ 이 사업은 인도의 다양한 무형문화유산 정보를 분야별, 지역별로 구분하여 접근 가능성이 높은 웹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것으로 아태지역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정보화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것이다.

2. 무형문화유산 협력 네트워크 구축 사업

아·태무형유산센터는 무형문화유산 보호 및 전승 관련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을 통하여 아태지역의 무형문화유산 보호 역량을 강화하고, 향후

5_ 이 사업은 아·태무형유산센터의 아태지역 무형유산 보호 현황 조사 사업(2009~2013년) 내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연도별로 아태 국가 10개국(1차년도에는 5개국 대상)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국은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가입국 가운데 우선적으로 선정하며, 또한 해당 지역 내 거점 확보, 개발도상국의 무형유산보호협약 가입 및 이행 장려를 위해 경우에 따라서는 정책적으로 대상국을 선정한다.

6_ 이 사업은 아·태무형유산센터의 인도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와 진흥을 위한 협력사업(2007~2008년)과 인도 문화 지도 웹 데이터 베이스 구축을 위한 협력사업(2008년)을 통해 진행되었다.

센터의 교육과 연수 기능 수행을 위한 국제적 역량 강화와 기관 및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호주 퀸즈랜드대학교 무형문화유산 전문가 네트워크 프로그램 개발 사업을 추진하였다. 특히, 올해에는 아태지역 12개국에서 12명의 문화유산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들을 초청하여 3주간의 아태지역 무형문화유산 전문가 협력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⁷

이와 더불어 센터는 무형문화유산 보호 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국내외 관련 기관 및 전문가들과의 상호 교류 촉진, 전문가 인력 풀 구축 및 센터의 지지 기반 확보를 목적으로 협력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구축해오고 있으며, 각종 홍보물 제작, 홈페이지 및 무형문화유산 자료실 운영 등을 통해 센터 설립을 위한 국내외 홍보사업을 추진 중이다. 올해 가을부터 아태지역의 무형문화유산 정보와 센터 활동에 대한 소식을 담은 뉴스레터를 발간하고 있으며, 무형문화유산의 가시성 제고를 위하여 유네스코의 협조로 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사진전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사진전은 향후 전국 순회를 계획하고 있다.

3. 무형문화유산 보호 제도 국제보급 사업

아·태무형유산센터는 대한민국이 경험한 무형문화유산 관련 제도를 아태지역 회원국과 공유함으로써 유네스코의 무형문화유산 보호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 내 관련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2007년부터 베트남 정부, 몽골 정부 및 유네스코 몽골위원회와 지속적으로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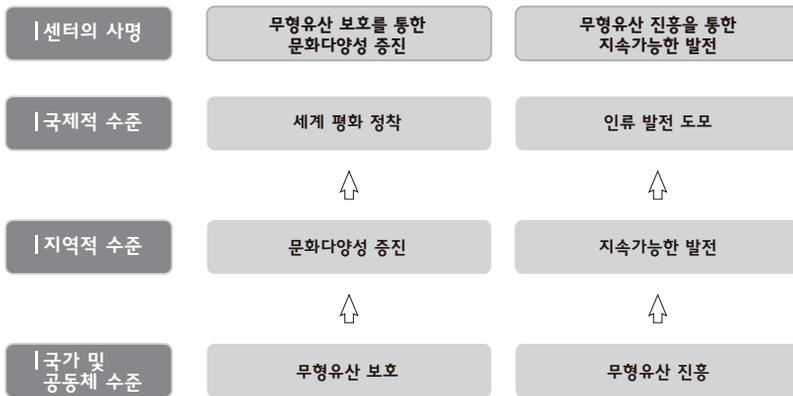
무형문화재 제도 시행을 준비 중인 베트남과의 협력 사업을 통해, 베트남의 무형문화유산 관계 전문가들이 한국의 무형문화유산 보호 현장과 관련 기관을 방문하여 유산 보호 현장을 견학하였으며, 또한 한국의 전문가들이 베트남의 무형문화유산 현장과 관련 기관에 파견되어 보호 제도와 조치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였다. 또한 인간문화재 제도를 준비 중인 몽골 정부 및 유네스코 몽골위원회와 협력 사업을 추진하면서 몽골의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법안을 마련하고, 무

7. 해외문화재 전문가 연수사업(2009년)은 아·태무형유산센터와 한국전통문화학교 전통문화연수원 주관으로 수행되었으며 연수과정은 아태지역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전문가 워크숍, 대한민국 내 문화유산 보호 관련기관 방문 및 세계문화유산 현장 답사, 온라인상 협력네트워크 구축으로 구성되었다.

형문화유산 목록을 작성하며, 현지조사를 통하여 보유자들을 발굴함으로써 몽골의 무형문화유산 보호 제도 보급 활동을 적극 지원하였다.

Ⅲ. 유네스코 카테고리 2 기구의 목적과 기능

아·태무형유산센터는 국가 간 상호이해를 위한 모든 국제 협력과 문화 보급 및 촉진을 장려함으로써 세계 평화와 인류 발전을 도모한다는 유네스코 헌장의 정신⁸⁾을 바탕으로 아태지역의 무형문화유산 보호 및 진흥 활동에 공헌함으로써 그 이상을 구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센터는 아태지역의 다양한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고 그 보호의 중요성을 전파함으로써 문화 간 대화를 촉진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무형문화유산을 창조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즉, 센터는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통한 문화다양성 증진’과 ‘무형문화유산 진흥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두 가지 명제를 센터의 사명으로 설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구현하고자 최고의 역량을 발휘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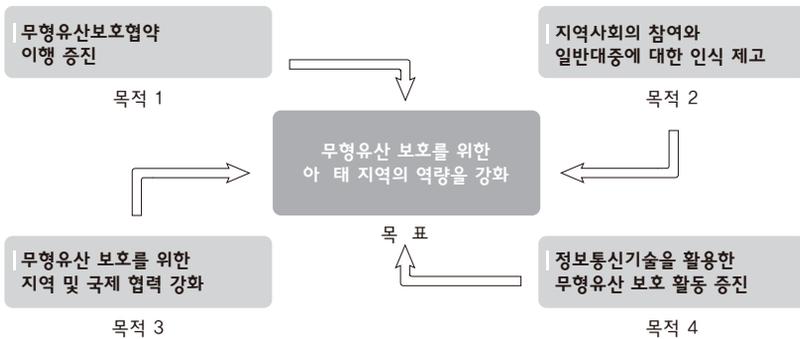


[표 1] 센터의 사명(Mission of the Centre)

8. 「유네스코 헌장」, 유네스코, 1945년 11월 16일 채택.

이와 같이 무형문화유산을 통한 문화다양성 증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사명으로 하고 있는 센터는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아태지역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기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센터는 다음의 목적⁹⁾을 가진다.

첫째,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이행과 관련하여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보호 조치를 수행하고, 관련 지역사회와 단체 및 해당되는 개인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것이며, 둘째, 일반 대중, 특히 청소년들의 무형문화유산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셋째, 무형문화유산 보호 활동에 있어서 국제적 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역적, 국제적 연대를 강화하는 한편, 넷째, 발전하고 있는 정보통신 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미래지향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있다.



[표 2] 센터의 목적(Objectives of the Cent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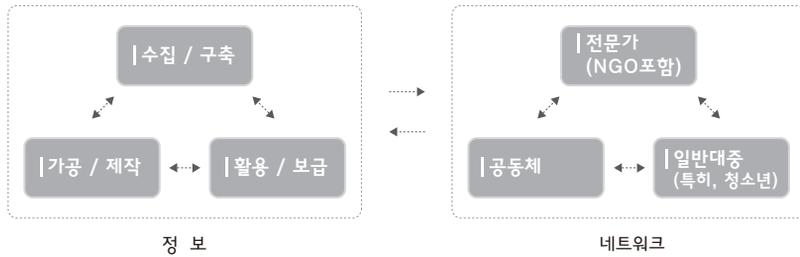
아울러, 향후 대한민국에 설립될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의 공식명칭은 ‘아·태무형유산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로 센터의 중점 기능은 ‘정보 및 네트워킹’이다.¹⁰⁾

센터의 활동에 있어서 ‘정보’란 끊임없이 진보하고 있는 디지털 기술과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해서 무형문화유산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수집·생산하고 디지털 형식으로 가공·제작할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를 통해 보급·확산하는 무형문화유산과 관련된 정보의 유통과정 전체를 의미한다.

9_ 「유네스코아시아태평양무형문화유산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카테고리 2)의 대한민국 내 설립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 간의 협정서」, 2009년 11월, 제 7 조 : 목적과 기능.

10_ 『아·태무형유산센터 타당성조사 자료집-유네스코 카테고리 II급』, 아·태무형유산센터, 9~10쪽.

그리고 '네트워크'는 정보의 유통과 관련된 모든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인적·물적 관계로, 지역사회 혹은 그 대표자들, 전승자, 전문가, 전문센터 및 연구기관 등에서부터 일반 대중에 이르기까지 센터의 활동과 관련해 무형문화유산 보호 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당사자 및 관계 기관의 네트워크를 일컫는 것으로 온라인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상의 네트워크도 포함한다.



[표 3] 센터의 기능(Functions of the Centre)

IV. 센터의 중장기 운영 전략

센터가 추진하는 무형문화유산 보호와 진흥을 위한 활동 및 사업의 실천적 측면에서의 중장기적 전략은 크게 아태지역의 현실과 요구를 반영하는 사업 추진, 무형문화유산 이해당사자 참여 및 센터의 조정·촉매 역할 확대, 협력 사업에서 다학문적 접근성 강조, 우선순위·선택과 집중 및 통합성의 적용, 그리고 무형문화유산 정보체제 구축과 국제협력 활성화를 들 수 있다.

우선, 아태지역의 현실과 요구를 반영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아태지역의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력 사업은 지역 및 각국의 현황을 파악하고 시급한 요구를 확인하는 등 아태지역 회원국과 긴밀한 협력 하에 추진한다. 센터의 협의체(이사회, 집행위원회)를 통해 지역 국가들의 시각을 반영하여 상호 협력적인 센터 운영 체제를 마련한다.

또한, 협력사업의 기획과 실행 부문에서 무형문화유산과 관련이 있는 지역 회원국 정부, 유네스코 본부, 관련 정부간기구GO, 비정부기구NGO와 협력하면

서, 특히, 2003년도 협약¹¹에서 강조되었듯이 유산 관련 공동체, 단체, 개인, 전문가, 전문센터, 연구소 등이 협약 이행을 위한 협력 사업에 적절히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아울러 다양한 협력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센터가 조정자 및 촉매자로서의 역할을 보다 확대해 나가도록 한다.

무형문화유산은 다양한 시대적 배경과 서로 다른 문화적 영향을 잘 나타내주는 종합 예술이다. 따라서 이 분야 협력사업의 기획, 실행 및 평가 단계에서 다양한 전공의 전문가와 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고 사업의 적시성과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학제 간 접근성을 강화한다.

한편으로는 아태지역 협력사업의 입안 단계에서 2003년 협약 규정과 지역 현실에서 나타난 사업의 중요도와 시급성 그리고 그 성과의 보급 범위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한다. 아울러, 예견되는 한정된 자원과 사업실효성을 고려하여 선택과 집중 전략을 적용할 수 있다. 특히, 상호 연계 가능한 사업들은 통합적으로 운영하여 시너지 창출을 유도한다.

아울러 지역 협력 사업을 추진하면서 특히, 한국이 축적해 온 정보 *Information* 분야의 노하우를 적극 활용하여 무형문화유산 보호 제도의 보급과 무형문화유산 관련 문화관광 육성, 문화콘텐츠 개발을 주도한다. 특히, 정보의 효과적인 확보와 공급을 위해 지역 및 국제차원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간다.

V. 센터의 전략 과제

센터는 ‘정보 및 네트워크’라고 하는 센터의 중점 기능을 기반으로 하여 ① 지정 및 기록, ② 진흥 및 보급, ③ 제도 및 정책, ④ 전승 및 선양, ⑤ 교류 및 협력 등을 무형문화유산 보호와 관련된 수단 및 조치로 설정하고 다음과 같은 전략 과제들을 수행하고자 한다. 센터는 이들 수단 및 조치가 정보 및 네트워크를 구축 과정에서 아태지역의 특수한 상황에 적절히 적용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안을 개발하고 이를 현장에 적용함으로써 무형문화유산 보호 활동을 가시화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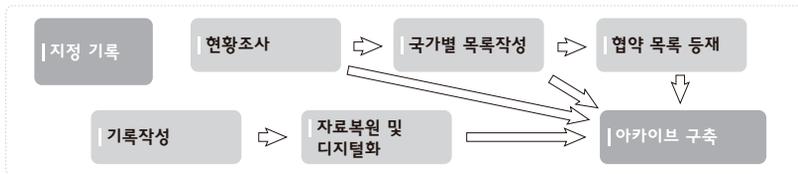
11 「무형문화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 제 15 조.

제 15조 : 공동체, 집단, 개인의 참여 - 무형문화유산을 보존하는 활동의 틀 내에서 이러한 문화유산을 창조, 유지, 전승할 수 있도록 당사국은 공동체, 집단, 필요할 경우 개인들의 가능한 많이 참여하도록 보장하며 문화유산의 관리에 적극적으로 일조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1. 지정 및 기록

무형문화유산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를 인식하기 위한 현황 조사 및 그 변화의 추이를 이해하기 위한 기록 작성을 의미한다. 국가별 목록을 만들고 기록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획득된 관련 자료와 정보를 디지털화 과정을 거쳐 아카이브에 축적한다. 특히 센터는 아태지역의 전문기관들과 함께 가이드라인 혹은 매뉴얼을 만들고 각각의 기관이 아카이브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아카이브 간의 연계망을 구축할 것이다.

먼저 현황 조사, 국가별 목록 작성 지원, 협약 목록 등재 지원이 지정작업으로 분류된다. 센터는 보호 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 작업의 하나로 개도국을 대상으로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가이드라인을 제작·보급하며, 개도국을 대상으로 활동 및 사업을 지원한다. 또한 한 종목 이상의 기존 목록 및 신규 지정 작업을 통해 확보한 종목을 대상으로 하여 국가별 목록 현황 파악 및 목록 작성 사업을 지원한다. 이와 더불어, 지정작업의 일환으로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당사국의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 및 긴급보호목록¹² 등재 신청을 지원하고, 매우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종목을 발굴하며, 협약 이행 장려를 위한 활동을 추진한다.



또한 센터는 기록을 위하여 기록 작성 매뉴얼을 제작·보급하고 개도국의 기록 작성, 특히 소멸 위기 종목에 대한 기록 작성과 관계 기관의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지원한다. 기록 작업에는 일반적인 기록 작성 외에도 노후 자료의 복원 및 디지털 변환, 아카이브 구축 사업이 포함된다. 즉, 자료 보존의 안정성 및 효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후되고 훼손 위험이 있는 관계 기관의 무형문화유산 관련 자료를 복원하거나 디지털로 변환하는 작업을 수행하며, 또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저장·관리하기 위하여 분류체계 및 메타데이터를 개발하고, 아카이브 구축

12. 「무형문화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 제 16 조 : 인류무형문화유산의 대표목록, 제 17 조 :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무형문화유산 목록.

가이드라인 및 매뉴얼을 보급하며, 관련 기관의 아카이브 구축을 지원하고, 포털 웹사이트를 통해 아카이브 간 연계망을 조직한다.

2. 진흥 및 보급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지적재산권 논의를 활성화하고 축적된 무형문화유산 관련 자료들을 가시성 제고에 활용하기 위한 전략이다. 무형문화유산 관련 정보의 획득과 활용 과정에서 대두할 수 있는 지적재산권 문제에 대한 논의를 사전에 주도하며, 축적된 자료들을 활용하여 무형문화유산 홍보 관련 출판물을 제작하고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보급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활동 전략으로 협약 이행 과정에서 향후 논의의 핵심으로 대두될 지적재산권 분야를 위한 현황을 조사하고, 관련 규정 적용 문제 및 보유자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의 문제 등 관련 사항을 논의한다. 또한 출판 및 홍보 전략 수행을 위해 일상에서 쉽게 무형문화유산을 접할 수 있도록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무형문화유산 잡지와 온·오프라인 센터 소식지를 발간하며, 무형문화유산 관련 홍보 영상물을 제작·보급한다. 그리고 무형문화유산을 활용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하여 디지털 콘텐츠 개발을 지원하고, 이와 더불어 디지털 콘텐츠 공모전과 같은 행사를 개최하여 대중의 참여를 장려하며, 인터넷 및 미디어 산업과의 연계·활용 방안을 마련한다.

| 진흥/보급

| 지적재산권 보호



| 출판 및 홍보



| 문화콘텐츠 개발

3. 정책 및 제도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 개발과 회원국에 적절한 법적, 행정적 제도 채택을 장려하기 위한 전략이다. 이를 위해 센터는 각국의 제도, 모범 사례 등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무형문화유산 보호와 관련된 다양한 가이드라인을 제작하는 한편, 회원국들의 무형문화유산 보호 제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네스코 인간문화재제도와 관련된 보급 사업을 추진한다.

센터는 정책 연구와 모범 사례 발굴 전략의 일환으로 아태지역의 무형문화유

산 보호 활동에 대한 모범 사례를 연구, 개발 및 발굴하여 보호 체계 구축에 활용하고 이를 사회문화적 특성에 알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지정, 기록, 조사, 보전, 제도, 진흥, 선양, 전승, 공식 그리고 비공식 교육, 활성화 등 무형문화유산 보호 조치와 관련한 각종 가이드라인을 개발한다. 또한 1993년에 유네스코에서 채택된 무형문화유산 전승을 위한 필수 지식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전승자'의 보호에 초점을 맞춘 인간문화재제도 보급을 위한 기술적, 행정적 지원을 제공한다.



4. 전승 및 선양

센터는 무형문화유산의 전승 및 선양을 위하여 전승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가시성 제고를 위한 공개행사를 개최한다. 또한 일반 대중, 특히 청소년들의 인식 제고 활동을 통하여 무형문화유산 선양 및 무형문화유산의 지속적인 전승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 개발·운영한다. 특히 정보 기술을 이용하여 무형문화유산 관계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이 런닝 시스템을 개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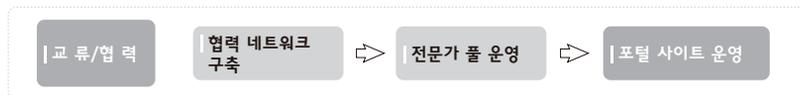
센터는 일반대중과 무형문화유산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시·공연 등의 공개 행사, 무형문화유산 교류를 위한 국제 페스티벌, 무형문화유산 체험 캠프 등을 개최하고, 전문가, 전승자, 공무원 등 무형문화유산 관계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한다. 또한 일반대중을 비롯한 전승자, 전문가들로 하여금 온라인을 이용하여 무형문화유산 관련 지식과 정보를 손쉽게 획득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이 런닝 시스템을 개발하고 구축한다.



5. 교류 및 협력

무형문화유산 보호와 관련한 정보와 지식의 교환을 위하여 무형문화유산 관계 기관 간의 국제적, 지역적 협력을 강화한다. 이를 위하여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력 네트워크 및 관계 전문가 풀을 구축하고, 이와 관련한 기관 및 개인이 온라인상에서 빠르고 편리하게 자료 및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무형문화유산 관련 포털 사이트를 운영할 것이다.

구체적 전략으로 무형문화유산 관련 기관, 전문가 및 전승자 등 다양한 주체 간의 국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보호 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프로젝트, 활동 또는 공동 연구에 활용하며, 전문가 풀을 구축하여 보호사업 시행을 위한 각 분야별 활동에 관한 자문을 수렴하고, 사회적, 문화적, 지역적 특성에 맞는 적절한 사업을 선정하고 진행하는 데 적용한다. 아울러 아태지역 무형문화유산 관련 아카이브 자료를 수집하고 산재해 있는 각종 관련 웹사이트를 하나로 묶는 게이트웨이를 통한 종합정보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VI.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 활동의 비전

아·태무형유산센터는 이상과 같은 다양한 과제들을 추진하는 가운데 유네스코의 아태지역 전문기구로서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게 될 것이다. 앞서 설명했듯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가면서 국제사회와 아태지역을 위해 센터가 가지는 중장기적인 비전은 다음과 같다.

우선, 센터 활동을 통해 기여하고자 하는 바는 유네스코의 설립목표이기도 한 평화의 문화 보급이다. '전쟁은 인간의 마음 속에서 생기는 것이므로 평화의 방벽을 세워야 할 곳도 인간의 마음속이다.'¹³ 인간의 마음과 정신에서 만들어지는 무

13. 「유네스코 현장」 전문.

형문화유산을 온전히 보호하고 전승하는 것을 기본 활동으로 하는 센터는 다양한 협력사업을 수행하면서 지역 및 국제사회에서 평화의 문화 보급, 인권의 신장과 각국의 문화적 발전에의 기여 등 평화와 민주적인 발전을 위한 원칙의 실천을 위해 노력한다.

또한 센터는 무형문화유산의 보호 활동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단순한 경제적, 양적 성장을 넘어서 인간의 실질적인 자유와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에서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와 활용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¹⁴ 센터 활동은 각 사회의 전통문화와 무형문화유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전승해 나가는 과정에서 세대를 거쳐 무형문화유산을 보존하고 발전시켜 온 공동체와 시연자들의 역할을 강화하고 사회적 발전의 한 영역으로서 보호 활동을 보급한다. 한편, 무형문화유산 자원과 지역의 각 국가에서 문화관광, 문화콘텐츠 분야를 비롯한 문화산업 전반과의 연계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하여 문화경제 분야 발전에도 기여한다.

우리는 센터의 활동을 통해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문화유산은 미래의 인류 발전과 각 사회의 문화적 다양성 보급과 창의성을 뒷받침하는 귀중한 원천^{Sources}이 되므로¹⁵ 센터 활동을 통해 무형문화유산 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하며 일반 대중의 접근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특히, 유네스코 대표목록 및 긴급보호목록 지정사업을 지원하고 지역 회원국의 기록화사업 지원 등을 통해 2003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의 이행을 증진하고 지역의 문화다양성 증진에 기여한다.

이와 더불어, 센터의 다양한 사업 활동 속에서 문화 간 대화를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서로 다른 인종, 민족, 종교, 문화적 배경으로 갈등과 긴장이 상존하는 지역 및 국제사회에서 문화 간 대화는 불가결의 요소이다. 센터 활동을 통해 아태지역 각국이 보유한 전통적인 문화 가치와 무형문화유산을 상호 인정하고 존중하며, 이의 보호에 대한 공동의 노력과 교류, 협력을 도모해 나감으로써 무형문화유산 활동이 문화 간 대화를 촉진하도록 노력한다. 이와 관련, 아태 지역에서 인접문화권의 국가간 무형문화유산 공동 등재를 지원하여 잠재적 갈등

14_ 1995년 발간된 세계문화발전위원회보고서 『우리의 창조적 다양성』 국제제 2.5항에서도 문화적 가치와 민족적 유산을 보호하고 풍요롭게 하는 인간발전전략의 수립이 권고되었다.

15_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선언』, 유네스코, 2001년 11월 2일 채택.

해소와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협력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중재자 역할을 담당한다.

한편으로는, 센터의 무형문화유산 보호 활동은 지역 문화사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된다는 점에서도 그 가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무형문화유산은 역사 발전 단계에서 각 사회의 전통적인 가치와 생활 의식의 변화 등 각 민족의 문화적 진화를 잘 반영하고 있다. 무형문화유산 분야 아태지역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각 사회 무형문화유산 발전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무형문화유산을 통한 인접 국가 및 지역 간 상호 영향과 발전관계를 연구하는 것 또한 중요할 것이다. 향후 센터 활동에서 아태지역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와 전승 분야에서 필요한 협력 네트워크 *Cooperative Network* 구축과 활용을 통해 아태지역의 문화사 공동비교연구와 관련 인적, 정보교류를 증진하여 지역의 문화사 발전에 기여한다.

맺음말

지금까지 향후 대한민국에 설립될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의 설립 배경과 그 목적 및 기능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센터의 창립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특히 센터의 중점기능인 ‘정보 및 네트워크’와 관련하여 평소 고심해 왔던 전략 과제들을 제시해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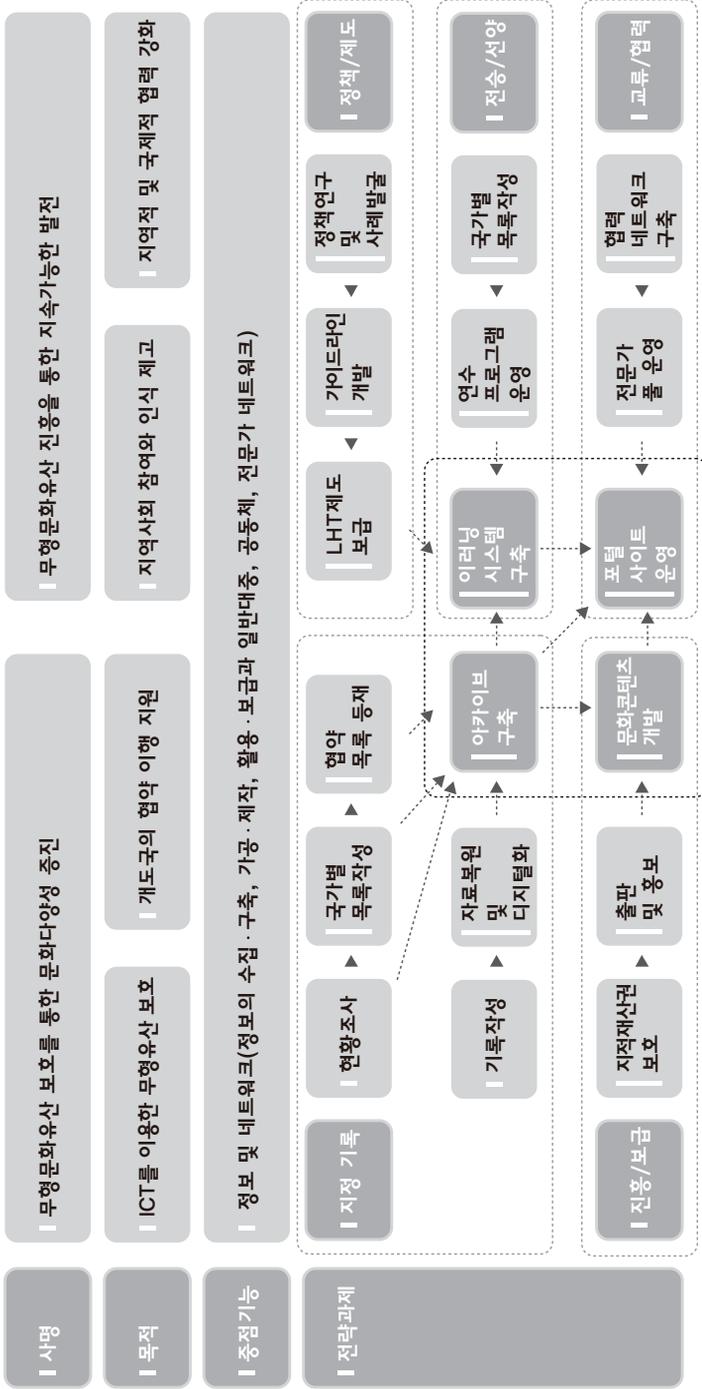
이번 기초발제를 마무리하면서, 이 기회에 미래 센터와 관련하여 몇 가지 소견을 곁들여 밝히고자 한다. 향후 센터의 활동은 전 세계 무형문화유산의 생명력 *Viability*을 보장하고자 하는 2003년 협약 정신의 구현을 위한 다양한 국제협력과 연대의 노력에서 출발할 것이다. 특히, 사라져가는 무형문화유산을 시급히 보호하고 제반 역량이 부족한 지역 회원국 지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이다.

2003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협약 체제 하에서 협약당사국 총회와 정부간 위원회가 구성되어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정책 과제들을 심층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이 분야의 미래 발전 가능성이 클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에 설립되는 유네스코 카테고리 2기구는 국제적으로 논의되는 정책 과제와 연계하여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문제해결을 위해 효과적인 전략을 개발하고 실행하는 데 조정자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아태지역의 무형문화유산 전문지역기구로서 무형문화유산 관련 정보

와 네트워킹을 활용하는 협력사업을 개발하고 적시에 추진해야 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센터의 활동 범위를 확장하고 관련 국제사업의 가시성을 증진하는 것 또한 현실적인 과제일 것이다.

유네스코, WIPO 등 국제기구 관계자는 물론 아태지역의 전문가가 다수 참가하여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정보와 네트워킹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국제회의가 새롭게 한국에 설립되는 유네스코 카테고리 2기구인 아·태무형유산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의 미래 활동을 위한 중요한 초석이 될 것이다. 이번 회의에서 제기되는 여러 의견과 제안사항이 향후 센터의 활동과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점을 약속드리며, 모든 참가자들의 허심탄회한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는 바이다.



아 · 태무형문화유산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구상도